

박현일의 색채 인문학 267 색채와 기업

색상 선택과 선호도로 본 사람의 성향

●검은색과 자동차
박혜란의 「한국인의 승용차 색채 선호도와 Image에 관한 조사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8.)」에 따르면 20대에서는 백색이 1위(9.03%), 파랑이 2위(3.47%), 회색이 3위(2.78%), 공동 5위인 하늘색과 검정색(2.08%), 공동 8위인 빨강과 은색 그리고 베이지색(1.39%), 밤색이 9위(0.69%)로 나타났다.

30대에서는 공동인 2위인 백색과 파랑(9.03%), 회색이 3위(6.25%), 하늘색이 4위(4.86%), 베이지색이 5위(4.17%), 밤색이 6위(2.78%), 검정이 7위(1.39%), 공동 9위로 빨강과 은색(0.69%)이 나타났다.

40대에서는 백색이 1위(11.81%), 파랑이 2위(4.17%), 회색이 3위(3.47%), 빨강이 4위(2.08%), 하늘색이 5위(1.39%), 공동 7위인 베이지색과 검정(0.69%), 밤색과 은색은 한 명도 선택하지 않았다.

50대에서는 백색이 1위

(6.25%), 파랑이 2위(2.78%), 베이지색이 3위(2.08%), 하늘색이 4위(1.39%), 나머지 색인 밤색, 빨강, 은색, 검정, 회색은 한 명도 선택하지 않았다.

1993년 미국 자동차 업계에서는 자동차 색깔로 운전자의 개성을 11가지로 정리했는데, 검정 차를 즐겨 타는 사람은 우아한 성품의 소유자이지만 한편 매우 복잡한 감정을 가져 일상생활에 비밀스러움이 많은 편이다.

2004년 대우자동차는 색상별 장단점을 구별했다. 검은색은 대형차에 어울리고, 멋쟁이들은 검은색 스포츠카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 이 색은 고급스럽고 강인한 위엄을 느끼게 하지만, 여름철에는 차체가 쉽게 더워지는 단점이 있다. 특히 비나 눈이 오고 난 후에는 반드시 세차해야 할 정도로 손이 많이 간다.

2013년 미국의 중고차 전문 사이트 아이씨카닷컴(iSeeCars.com)은 남성과 여성의 자동차 색상 취향에 대해 조사했다. 이 조사는 3000만 대와 그 차를 담당하는 판매원에게 연락한 고객 수십만 명을 대상으로 1년간 이뤄

졌다. 그 결과 검은색과 하얀색 자동차는 남녀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색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외의 색상 선호도는 남녀가 다르게 나타났다. 붉은색 자동차는 여성보다 남성이 선호했고 오렌지색도 남성들 사이에 선호도가 높았다. 그러나 남성에게 가장 인기 있는 색상으로는 검정과 하양이었다.

●색채의 선호도

사람들의 색 선택은 각자의 유전자, 아동기 때의 기억들, 교육, 부모님의 믿음, 문화적 훈련, 정치적 성향, 그 밖의 여러 가지 결과물이다.

사람이 모든 색을 싫어한다면, 그 사람은 음악과 어린이 그리고 전반적으로 세상 자체를 싫어하는 편이다. 무엇보다도 색을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매우 싫어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문화예술 기획자/ 철학박사·미학전공 문수성

농번기 수확철, 농작물 절도 예방과 대응하자

독자투고

길고 길었던 무더위가 끝나고,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아 살찌는 계절 천고마비의 가을이 다가왔다.

더위에 움츠렸던 시민들은 나들이를 시작하고 피담플러 농사를 지었던 농민들은 농작물 수확을 하며 일년 농사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울여름 폭염과 집중호우 여파로 인해 농작물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배추가 너무 비싸 배추를 삼겹살에 싸먹는(?)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농작물 절도범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듯 추수를 끝낸 농민들의 농작물을 훔쳐가 땀 흘려 재배한 농작물이 도난 당함으로 인해 그에 따른 상실감은 이로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농작물 절도는 검거와 처벌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중요하다. 농작물 절도 예방 팁으로는, 첫째, 무단속만 잘해도 절도를 예방 할 수 있다. 잠깐 외출시에도 출입문, 창문 및 창고 시정장치는 필히 하셔야 한다.

둘째, 마을이장 및 이웃주민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다. 출타 시 마을이장, 이웃주민과 서로 집을 봐주는 공동 감시환경을 조성하여 절도범이 접근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셋째, 의심스러운 차량 발견 시 경찰

에 신고하는 것도 중요하다. 마을 주변 수상한 차량 및 사람이 서성거린다면 지체없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차량번호와 특징을 적어 놓아야 한다.

넷째, 집 앞 마당 등 개방된 곳에 농작물 말리지 않거나. 집 앞 마당 등 개방된 곳에 농작물을 말리는 행위는 범죄자들의 주 표적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다섯째, '빈 집 사전예약순찰제' 활용이다. 장기간 집을 비울 시 가까운 지구대·파출소에 '빈집 사전예약순찰제' 요청하면 된다. 수확의 계절이 다가오면서 농작물 절도범을 주의하여 농민들의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게 풍성한 결실을 맺고 사전 예방에 신경써야 할 것이다.

문수성 <전남도경찰청 기동순찰대 경사>

진일보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온라인 뉴스서비스입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흑백요리사' 광주 온다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출연으로 인기가 증인 셰프 최현석, 여경래, 파브리치오 페리리가 오는 18일 광주에 온다. 이들은 김치명인들의 김치를 재해석한 '김치 축제 푸드쇼'를 펼친다. 사찰음식의 대가인 정관스님도 행사에 참가한다. 이날 최현석 셰프는 갖김치 간장계장 리조프를, 여경래 셰프는 대하김치 통새우 고기찜, 파브리치오 셰프는 갖돌김치 문어 냉파스타, 정관스님은 맨드라미 백김치 묵밥을 선보인다. 광주시청 아외음악당에서 진행되는 김치축제는 세계 어떤 요리와도 어울릴 수 있는 김치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한다.



"남한과 단절" 한반도 긴장 고조

북한이 완전무장한 8개 포병여단을 사격 태세로 전환한 가운데 지난 15일 남북을 연결한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를 폭파하는 등 요새화 작업에 돌입했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남북 육로 단절을 위해 도로 주변 지뢰 매설과 철로 제거 등을 진행해 왔는데, 동시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6월 북한과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법안을 하원에 제출하는 등 국내법으로 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하면서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조약에는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나사 '목성 얼음행성' 생명체 탐사 시작한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무인 탐사선 '유로파 클리퍼'가 발사됐다. 이는 달 이후 최초의 위성 탐사선이다. 우주선의 임무는 목성 위성 '유로파'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지를 살피는 것인데, 약 5년에 걸쳐 총 29km를 이동한다. 유로파는 태양계에서 여섯 번째로 큰 위성으로, 크기는 달의 약 90%다. 과학자들은 유로파 표면의 15~25km에 달하는 얼음층 아래 염도가 있는 바다가 있어 생명체가 서식할 만한 환경을 갖췄다고 보고 있다. 또 목성 탐사선 주노의 관측 결과, 유로파에는 약 1000톤의 산소가 생성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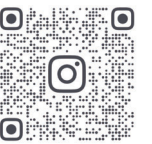


진일보 추천 전남 '은행나무' 명소

가을이 무르익는 시기에 빠질 수 없는 단풍 구경. 늦더위로 인해 올해 단풍은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절정에 이를 예정이다. 가을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진일보 pick' 전남 은행나무 명소를 소개한다. 먼저 1km의 산책길이 있는 덕경수목원 은행나무길(수북면 대방리 산 23-1)은 담양군 청소년수련원 입구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진입하면 찾을 수 있다. 노랗게 물든 황금빛 은행나무 길을 만끽할 수 있는 나주 은행나무 수목원(남평읍 동촌로 236-42)과 김영량 시인의 문학이 깃든 강진 영랑생가(강진읍 탐동마을)도 명소로 꼽힌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인스타그램에서 진일보를 검색하세요

https://www.instagram.com/jnilbo
Kakao Talk : 진일보
E-Mail : jebo@jnilbo.com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19년 연속 선정
신뢰할 수 있는 신문 전남일보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복고당 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편안, 음식조절입니다.